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48)

성인 예비자 교리를 통해 만났던 다수의 예비 신자들이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동기와 이유로 본인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 생활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체험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사제 성소를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 일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자신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 살아 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은 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기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눈먼 이가 보게 되거나,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믿겠다는 식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기적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쳐주고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과 완고한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믿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빵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빵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1열왕 19,7)

마른 바람 스치는 사막에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삶의 보따리를 내려둔 채, 성호를 긋고 늦은 한 끼를 해결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엘리야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위장을 가득 채우고도 영혼이 허기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다시 길을 나서야 하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